

이재명 “당정, ‘선구제 후구상’ 전세사기 특별법 동참해야”

민주당, 인천서 현장 최고위...미추홀구 아파트 방문 피해자 면담 “원희룡, 전세 사기 피해 주무 부처 수장이 책임 안지고 총선 출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인천을 돌며 수도권 표심을 공략했다.

전세사기 '건축왕'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 1주기를 앞두고 정부·여당에 민주당의 '선(先)구제 후(後)구상' 방식의 지원 방안 수용을 압박하는 한편,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인천 계양을) 인근에서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먼저 인천 남동구에 있는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번 2월 국회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 선구제 후구상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가해자를 잡아 처벌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급선무는 길바닥에 나왔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주거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며 "그런데 전세 사기 피해 구제를 말만 하면 정부와 여당이 전혀 협조를 안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선구제 후구상 방식 지원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 "대국민 정책 사기극을 할 때가 아니라 경제가 폭망하고 국민들이

죽음을 선택하면서 고통받고 있는 시기이니 진정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민생, 경제정책을 실질적으로 실현해야 한다"며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부터 즉각 나서달라"고 압박했다.

계양을에서 이 대표와 맞붙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겨냥한 견제구도 나왔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속출했을 때 원 장관이 주무 부처 수장으로서 책임이 있다는 비판이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원 전 장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특별검사 수사 대상 1순위인 데다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도 내놓지 않고 도망치듯 장관직을 버리고 총선에 출마했다"며 "정말 치우야 할 돌덩이가 누구인지 인천 시민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전세 사기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를 방문해 피해자들을 만났다.

이 대표는 피해자들에게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이 통과돼야 선구제 후구상이 되고 아파트도 강제관리가 가능해진다"며 "(총선에서) 이길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도와주시면 이 문제가 더 빨리 해결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당에서 열린 인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설훈, 탈당 시사...공천 갈등 고조

민주당 하위 10% 통보 반발...단수공천 결과 문제 제기 잇따라

더불어민주당 공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소위 '유령 여론조사' 의혹과 '현역 의정활동평가 하위 20%' 논란으로 불거진 공천 잡음은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단수공천 심사 결과에 대한 문제 제기로 번지는 모양새다.

당내 일각에서는 '진명(진이재명) 본선행, 비명(비이재명) 경선행'이 공관위의 공천 공식 아니냐는 말까지 돈다. 실제 공관위가 25일까지 7차에 걸쳐 발표한 현역 의원 단수공천자 51명 가운데 대다수는 진명계였다. 이를 두고 26일에는 단수공천 대상자 중 비명계가 뚜렷한 현역 의원은 사실상 전문(전문재인) 핵심인 윤건영(조선·서울 구로을) 의원뿐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비명계 중진이자 '하위 10%'에 포함된 설훈(5선·경기 부천을) 의원은 라디오에서 "현역 단수공천자 가운데 부산과 경남을 빼고 특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윤건영 의원 한 명뿐"이라며 "나머지 비명 의원들은 경선에 부쳤는데 말이 경선이지 소위 자객공천을 당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설 의원은 특히 "(경선이 아닌 방식으로) 출마하기로 결정했다. (하위 10%에 들어 경선 투표의) 30%를 감산 받으면 그 과정을 통과할 사람은 민주당 내에 아무도 없다"며 탈당을 시사했다.

진명계 김우영 강원도당위원장이 비명계 강병원(재선) 의원과 강 의원 지역구인 서울 은평을에서 경선을 치르도록 한 공관위 결정을 두고도 여진

이 이어졌다.

홍익표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은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김 위원장의 은평을 출마가 부적절하며 반대 의견을 개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공관위 관계자는 "검증위에서 적극적으로 올라온 사람을 공관위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며 "시스템 공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천 갈등의 수위가 고조되는 가운데 최대 뇌관으로 꼽히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공천 문제가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당내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고심을 거듭하던 전략공천위는 최근 임 전 실장에게 서울 송파갑 출마를 타진했으나, 임 전 실장은 옛 자신의 지역구였던 서울 중·성동갑 출마 의지를 고수하고 있다.

비명계는 임 전 실장을 중·성동갑에 전략공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략공관위를 압박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선거 공작 대비 감시팀 꾸린다

전 국정원 요원으로 구성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 감시를 위해 전직 국정원 직원으로 구성된 팀을 꾸린다.

당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의원은 26일 국회 브리핑에서 "최악의 관권, 검권, 공작선거가 예상된다"며 "상황실에 국정원선거개입감시팀을 구성해 과거 댓글, 총풍, 북풍 같은 선거공작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팀장은 총선 영입 인재인 박선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맡고 팀원은 전원 25년 이상 국정원 경력자로 구성한다.

김 의원은 "과거 국정원 '하안방 고문'과 재외국민선거 개입을 고발한 전 해의 공작관, 국정원 재외선거 여론공작을 고발한 전 해의 공작관, 국정원 공급원령 사건을 고발한 전 해의 공작관 등 경력자들"이라며 "최소 5명"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정무적인 박 전 차장 이외에는 비실명으로 국정원직원법 비밀엄수 조항을 지키면서 국정원 선거 개입 제보를 수집, 조사, 고발하는 활동을 할 것"이라며 "선거 공작에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국정원 직원이 있다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감시팀 구성 배경에 대해 "얼마 전에 과거 댓글공작 팀 관련됐던 분이 사면된 것을 포함해 여러 가지로 유념해야 할 만한 상황"이라고 하는 대내외의 판단이 있다"며 "감시팀에 참여해줄 분들이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런 감시팀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례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면서도 "여러 가지 대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만반의 준비, 대비를 다 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또 "이번 선거 상황은 초 불균형 선거 관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대통령이 직접 관권선거의 최전선에 나섰고 관권, 검권부터 선관위까지 공정한 관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있다"며 "우리 당의 모든 후보자들에게 표준법 선거를 당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모든 선거 관련 공권력들은 굉장히 불균형한 선거 관리를 할 것으로 생각해서 표준법 선거 원칙을 지키며 확정된 후보자 교육을 즉각 실시할 것을 방침으로 정했다"며 "선거 이후 관리 기구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부정선거 감시 뿐 아니라 후보들이 불균형한 선거 관리 하에서 조금의 트집도 잡히지 않도록 하는 자체 리스크 예방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민주 초선 소병철·황운하 불출마

소 "소임 완수 자부한다"...황 "당, 부담 덜고 단합 하기를"

더불어민주당 초선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과 황운하(대전·중구) 의원이 26일 4·10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소병철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도덕심과 이성애 반하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 하루하루 힘든 불면의 밤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며 "고심 끝에 저 한 사람이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광야에서 외치는 목소리를 내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이 당내의 분열과 대립된 상황에서 실망하고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반영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으로 신뢰를 회복해 달라. 진짜 개혁은 읍참마속의 결단으로 혁신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생을 일으키고 호남·순천의 균형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많은 성과를 이뤘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게 돼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소임은 완수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검찰 출신으로 법무부 검찰 1·2과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쳐 퇴임한 이후 낙향, 순천대 석좌교수로 재직하던 중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영입돼 전략공천을 받고 당선됐다.

황운하 의원은 "제 희생이 위기의 민주당을 구해내고,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심판의 밑거름이 된다면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겠다"며 "이제 제 결단으로 당 지도부가 부담을 덜어내고 당이 단합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의 황 의원은 당내 강성 초선 모임 '처럼화'를 주도하는 등 진명(진이재명)계로 분류된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동행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시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치평지점 062)381-8212~3
쌍촌지점 062)381-6551~2
외정지점 062)372-0421~3

유동지점 062)512-1984~5
동림지점 062)513-8521~3
운암지점 062)527-3295~6
운천지점 062)371-2772~3

유덕지점 062)373-3235~6
동운지점 062)528-2640~2
배틀지점 062)381-1971~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